

대순사상에 대한 한철학적 접근 방법론에 관한 시론

김 상 일

한신대학교 · 명예교수

- | | |
|--------------------------------|--------------------------|
| I. 머리말 | V. 삼존시대론: 평균적 양상과 전향적 양상 |
| II. '인류 문명의 기원'과 대순 장전(章典) | VI. 대순종지에 대한 논리적 성찰 |
| III. 원시반본으로 본 3원 8소적 문명관 | VII. 맺음말 |
| IV. 한철학적 시각에서 본 음양합덕 종지에 대한 검토 | |

I. 머리말

필자가 <한철학>을 저술한 때는 1983년이다. 책을 펴내게 된 동기는 거의 10년간의 미국 유학 생활 기간 동안에 느낀 우리 학문 그리고 우리 것에 대한 갈망과 국제적으로 한국적인 것의 존재가 너무나 빈약한 데서 오는 충격 때문이었다. 이때는 광주 항쟁 이후 국내적으로는 우리 것 찾기가 활발 때이기도 하여 마침 시의 적절하게 책이 출판되었다고 사려 된다. 이러한 순수한 동기에도 불구하고 우리 것에 대한 무시와 사대주의적 학문하는 태도는 국내 학계에서 냉대를 받을 수밖에 없었으며, 심지어는 처음 부임한 학교에서 재임명 탈락이라는

경험도 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에 대한 나의 학문적 추구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거의 4반세기 동안 연구해 나오는 과정에 몇 단계 변화의 단계도 있었다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 한철학 이후 나온 책이 <한밤문명론>(1987, 지식산업사)이었다. 당시 캔 윌버의 초인격심리학은 우리 사상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한의 역사 심리학적 접근 방법론이 이 책에 적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1장이 이 방법론을 적용하여 대순사상의 역사 심리학적 내용을 소개한 것이다. <인류문명의 기원과 한>(1989, 기린원)에서는 우리 고대사에서 한의 어원을 슈메르어에서 찾는 시도를 한 것이다. 이 작업은 지금 조철수박사 같은 전공자들에 의하여 심화되고 있다. 본 논문에는 한의 어원을 언급할 때에 약간 소개 될 것이다.

1990년에 들어 와 필자는 한을 주로 현대 과학의 개념에 적용하는 시도를 하였다. <퍼지와 한국문화>(1992, 전자시문)와 <카오스와 문명>(1994, 동아출판사) 그리고 <러셀역설과 과학혁명구조>(1999, 숲), <초공간과 한국문화>(1999, 교육과학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본 논문에서는 한철학의 이 부분이 2장에서 소개된다. 2000년대에 출간된 <원효의 판비량론>(2004, 지식산업사), <역과 탈현대의 논리>(2006, 지식산업사), <알랭 바디우>(2007, 새물결) 등은 모두 한철학의 논리에 관한 것이다.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한철학의 이 부분은 본 논문의 3장에 소개 되고 있다.

이렇게 본 논문은 4반세기 동안 전개된 한철학의 내용을 단계별로 나누어 각 장으로 한 다음 이를 대순사상과 일대일 대응을 하면서 상호 간의 일치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는 부분을 분석해 나가는 방법으로 논문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한철학이 이 척박한 학문 풍토 속에서 그 동안 격려를 받고 추동력을 준 곳은 두 말 할 것 없이 우리 민족 종교 일 것이다. 물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II. ‘인류 문명의 기원’과 대순(大巡) 장전(章典)

대순 사상의 4대 종지는 장엄한 문명사관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아래 강증산이 우주의 구석구석과 지구촌 방방곡곡을 둘러보고 바로 이 조선 땅에 오게 된 동기와 목적을 설파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실로 이는 우리 민족의 대서사시의 서문인 동시에 인류 문명사를 단 번에 진검 승부하는 글이라 할 수 있다. 그 내용을 들어 보자.

원시의 모든 신성과 불과 보살이 회집하여 인류와 신명계의 이 겁액을 구천에 하소연하므로 내가 서양(西洋) 대법국(大法國) 천계탑(天啓塔)에 내려와 천하를 대순(大巡)하다가 이 동토(東土)에 그쳐 모악산 금산사(母岳山金山寺) 삼층전(三層殿) 미륵금불(彌勒金佛)에 이르러 三十년을 지내다가 최 제우(崔濟愚)에게 제세대도(濟世大道)를 계시하였으되 제우가 능히 유교의 전현을 넘어 대도의 참 뜻을 밝히지 못하므로 갑자년(甲子年)에 드디어 천명과 신교(神敎)를 거두고 신미년(辛未年)에 강세하였노라」고 말씀하셨도다.(교운1-9)

모든 종교는 그 종교가 태어 난 땅을 인류의 발생지라 하고 그 시조로부터 문명이새로 탄생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런 위대한 선언을 할 수 있는 정신적인 지도자를 각 민족은 나름대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한 시대의 종말과 새 시대가 나타날 때에 미래를 내다보고 이를 그리는 것을 ‘목시 문학(apocalyptic literature)’이라고 한다. 실로 위대순 장전은 우리 민족의 목시 문학의 빌미와 같은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대교의 다니엘 서, 기독교의 요한 계시록 속에는 이와 같은 표현의 글들이 많이 있다. 목시 문학은 한결같이 새 질서의 도래를 언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같다.

증산은 시대를 천존시대, 지존시대, 그리고 인존시대로 구분을 하였 다. 바야흐로 때는 천존, 지존시대가 가고 인존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으로 문명을 진단하고 있다. 이 3시대 구분의 중요성과 더 자세한 분석적 고찰이 바로 아래에서 다루어 질 것이다. 이 3시대 구분은 바로 다름 아닌 켈 월버의 3원 8소적 문명 구분과 일치한다.

토인비는 인류 문명의 4대 발생지를 인도, 중국, 메소포타미아, 나일강 유역으로 보고 있다. 증산이 대순한 지역이 바로 이런 문명 발생지들이다. 탄강 이전에 둘러 본 곳이 바로 문명 발생지와 일치한다. 위 대순 장전에 의하면 토인비의 이러한 문명사관이 옳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4대 문명은 아류 문명이며 더 시원적인 문명이 있다는 것이며, 이런 아류 문명권에서 생긴 피폐한 상황을 바로 잡기 위해 증산이 탄강했다는 것이다. 증산이 한 이 말이 얼마나 옳은가는 바로 필자의 <인류 문명의 기원과 한>이 답할 것이다. 필자는 이 책을 통하여 수메르와 한국 문명 간의 관계를 다 각도로 고찰하고 있다. 언어를 비롯한, 고산 숭배 사상, 태모신 숭배 사상들에서 수메르는 한국의 원형임을 증명하려 하였다. 필자의 이러한 학문적 노력은 바로 증산의 대 장전을 뒷받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S. 크레머는 <역사는 수메르에서 시작했다>에서 인류 문명사의 39가지 새로운 사실들이 모두 수메르에서 시작하였다고 했다. 이집트의 피라밋은 수메르의 지구라트에서 유래하였고 전자는 후자보다 2000여년 늦게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인도 문명의 모헨조다로 역시 수메르에서 유래하였음이 최근 발굴되는 유물들이 속속 입증하고 있다. 그리고 수메르의 지구라트는 동북아 일대 우리 민족의 고산 숭배 사상과 맥을 같이 한다. 중국 민족만 하더라도 제사를 효사라 하여 들판에서 지내지만 우리 민족은 수메르와 같이 고산에서 지낸다. 이런 고산 숭배 사상은 수메르와 우리 민족의 동일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동북아 문명권에서 중국과 우리와의 관계도 대순 장전의 시각에서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까지 알려진 황하강 유역 문명은 이미 그 보다 1000여년 앞선 홍산 문화에서 유래했음이 입증되고 있다. 홍산 문화 보다 더 오래된 요하 문명의 발굴은 동북아 문명권의 대 지

각 변동을 예견하고 있다.¹⁾ 수메르인들의 여신상 숭배는 홍산 유적에서 나온 대형 원형 여신상 제단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리고 언어에 있어서 언어 특징, 문법 구조, 수사의 일치 등에서 수메르와 유사한 언어는 지구상에서 한국어뿐이다. 다른 언어들은 3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는 일치할지 몰라도 3가지 경우 다 해당하는 것은 없다. 예를 들어서 ‘한’은 수메르의 ‘안’과 ‘텡그리’는 ‘텡그리’와 같다고 여겨진다. 이외에 유사한 언어의 예는 여기서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이다.

그래서 필자의 인류문명의 기원과 한은 대순 대장전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대순 사상의 문명사관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한철학이 공헌할 수 있는 측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순 사상을 비롯한 우리 민족 종교 전반의 사상은 19세기 말적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다. 19세기 말은 마르크스, 프로이트, 그리고 다윈이 태어난 시기이다. 우리 민족 종교 지도자들도 같은 시기에 태어났다. 서양에서는 이들은 모두 반역아들이었다. 종래의 신 중심적 사상(천존시대)을 탈피하고 인간중심주의적 가치를 든 인물들이다. 서양의 이러한 반역아들과는 달리 우리 민족 지도자들의 경우는 사정이 달랐다. 수운은 “유도 불도 누천년에 그 운이 다했다”라고 하면서 동학을 선포하였다. 서학에 대한 그 반명제적 선언이다.

수운에 대하여 증산은 약간의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증산이 수운에게 제세대도를 계시했으나 수운이 유교의 테두리를 넘지 못하고 대도의 참 뜻을 밝히지 못하므로 천명과 신교를 거두었다고 했다.(교운 1-9) 수운은 선도의, 진목은 불교의, 주회암은 유교의, 이마두는 서도의 종장이 되었다고 한 것은 이들 선임자들이 종합적이지 못하였다는 데 대한 증산의 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²⁾

한철학은 대순 대장전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과 이들 선임자들과 증산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불필요

1) 우실하, 『요하문명론』, 서울: 소나무, 2007, 32-5쪽.

2) 이향녕, 『현대문명과 대순사상』, 서울: 일심, 2004, 20쪽.

한 상호간의 오해를 푸는 데도 한철학은 기여할 것이다. 불필요한 종단 간의 오해는 대부분 문제를 과학적으로 접근하지 않은 데서 발생한다고 본다. 이항녕 선생의 다음 글은 시사하는 점이 많지만 이에 알맞게 이를 학문적인 방법으로 서술해 내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증산은 어디까지나 수운을 인류사상 최고급의 성인으로 대접하면서 자기 자신의 사명감을 더 강력하게 내세운 것뿐이다. 이 점에 관해서는 수운을 받드는 측에서나 증산을 받드는 측에서나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여 수운과 증산의 사상을 종합해서 발전시켜야 한다.³⁾

역사적 사건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후-사건 after-event’이다. 발생기의 아무리 큰 사건도 후-사건을 만들어 내지 못하면 실패한다. 대순 사상은 강증산-조정산-박우당으로 이어지는 후-사건 때문에 오늘의 교단이 있게 된 것이다. 후-사건은 항상 앞의 것을 포함하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더 크기 마련이다. 알랭 바디우는 어느 사건보다는 후-사건을 더 중요시 한다. 예수의 후-사건은 바울이며, 프랑스 혁명은 후-사건 없이 오늘의 건국의 기추가 될 수 없었다는 것이다.⁴⁾

그런 의미에서 대순장전은 그 자체로서의 큼은 물론이지만 후-사건이 지금까지 만들어져 왔기 때문에 위대해져 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민족 종단의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은 1. 후천개벽 사상, 2. 신과 인간의 조화 사상, 3. 인격신과 비인격신의 조화, 4. 해원 사상, 5. 유기체적 세계관 등이라고 볼 수 있다. 대순 4대 종지는 이들 제 특징들을 잘 요약해 정리해 놓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이 4대 종지 속에 우리 민족사상의 정수 곧 한의 정수가 모두 들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제부터 이에 대한 각개 분석을 해 나가기로 한다.

3) 같은 책, 20쪽.

4) 김상일, 『알랭 바디우와 철학의 새로운 시작』, 서울: 새물결, 2007.

Ⅲ. 원시반본으로 본 3원 8소적 문명관

<한철학>을 저술할 당시에는 윌버를 알지 못하였다. 켄 윌버를 알게 된 것은 한철학을 펴낸 이후이다. 윌버의 “Up From Eden”은 피아제의 인지 발달 심리학을 힌두이즘등 동양 사상과 연관시켜 문명사를 신화적 구성 요소로 고찰한 책이다. 여기서 말하는 신화적 요소들이란 다름 아닌 다음에 말할 3원 8소적 요소들이다. 윌버는 이 3원 8소가 한 문명권에서는 발견할 수 없어서 여러 곳에서 모아와 하나의 연쇄 고리 속에 넣어 구조를 만들었다. 그러나 필자가 보았을 때에 우리 한국 문명권에서만 일관성 있게 설명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착안에 결과하여 나온 것이 바로 <한밤문명론>이다. 이 책은 대순 사상의 장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시 말해서 증산이 천하를 주유했다는 대순의 여정이 바로 3원 8소 속에 들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증산 연구에 있어서 이 구조를 파악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3원(元) 8소(素)란 8개를 사닥다리에 비유하여 단계, 혹은 층(層, strata)이라 부른다. 3원이란 증산의 천존, 지존, 인존의 시대 구별과 대동소이 하다. 전분별, 분별, 초분별의 자아의 3단계를 의미한다. 켄 윌버(Ken Wilber)⁵⁾는 그의 책 Up From Eden에서 피아제의 인지 발달론과 문화인류학을 연관시켜 인간의 의식구조와 문명의 전개 단계를 8층으로 나누었다. 제 1층을 우로보로스(Uroboros)층이라고 했다. ‘우로보로스’란 신화적인 상징으로 뱀이 자기 입으로 자기 꼬리를 물고 있는 모양이다.⁶⁾ 에리히 노이만은 이 단계를 인간의 가장 낮은 의식 단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아 처음 언급하였다. 윌버는 노이만의 용어

5) Revision 잡지의 편집인이며 초인격심리학의 창시자로 Up From Eden, Atman Project 등 다수의 책을 출간하였다.

6) E. Neumann, *The Origin and History of Consciousness*, The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3. p.5.

를 그대로 가져와 사용한다.

우로보로스는 모든 미분리 및 전분별적 자아의 의식 상태를 의미한다. 인간의 의식이 자연환경에서 아직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서 500만 년 전에서 20만 년 전에 있었던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같은 유인원적 인간들의 의식구조를 반영한다. 우리나라 대동강 유역의 검은 모루 유적에 살던 의식 구조이다. 월버는 이러한 계통 발생을 개체 발생과 연관을 시켜 개인 나이로서는 0세~2세 사이의 의식상태로 본다. 여기서는 오직 감각적 느낌만이 작용한다. 피아제는 이를 감각운동기(sensory motor period)라고 했다. 인간이 에텐 동산에 머물러 있던 상태이고, 어린아이가 어머니 태반 속에 있는 상태이다. 신화는 이런 우로보로스 상태를 바다, 동굴, 골짜기, 궤적, 알 같은 것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우리말의 ‘알’은 상당히 많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으며, 삼국의 시조들은 이 알에서 깨어난 것이 특징이다. 주몽과 박혁거세가 모두 알에서 탄생하는 것은 이를 반영한다. 난생 신화를 남방계, 천손 강세 신화를 북방계로 나누는 것은 잘못이며 남·북방에 상관없이 인간의 전분별적 의식 구조를 반영하는 것이 ‘우로보로스’이다. 알-우로보로스라고 하는 것이 적당한 표현이다.

알층 혹은 우로보로스 층은 다음에 말할 타이폰(Typhon) 층과 함께 무속적 의식 구조를 결정한다. 타이폰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가이아의 아들이다. 가이아는 바로 카오스의 딸이었다. 타이폰은 반인반수의 짐승 몸을 하고 있는 괴물이다. 20만 년 전에서 1만2천 년 전까지 살았던 네안데르탈인(타이폰 1기), 크로마농인(타이폰 2기)들이 이에 속한다. 덕천 역포 인간이 이에 해당한다. 인간이 자연환경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는 데는 성공했으나, 자기 속에서 마음을 몸에서 분리시키지는 못한 의식구조를 타이폰층이 반영한다.⁷⁾ 감정이나 성적 욕망 같은 몸에 묻어 있는 요소들에 의하여 지배받던 의식구조를 타

7) 최근 발굴된 갑골문에 의하면 어질 仁자가 몸 身과 마음 心의 합성어로 되어 있다. 이는 인간은 몸과 마음의 합성체로 파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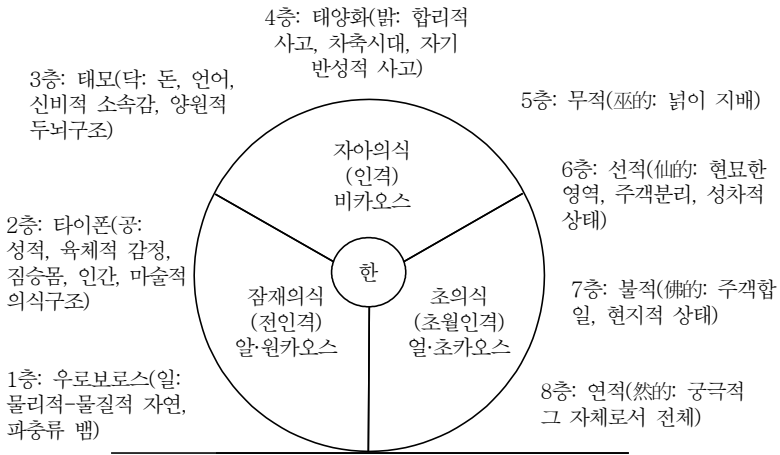
이폰층이 반영한다. 타이폰은 전세계의 신화 속에 나타난다. 반은 짐승이고 반은 인간의 모습을 한 타이폰의 대표격은 한국신화에 나오는 곰이다. 곰이 변해 인간이 되었다는 단군설화는 매우 설득력 높은 한국적 타이폰을 반영하고 있다. 곰은 어형이 변해 ‘갸’이나 ‘검’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타이폰은 한국의 곰으로 되며, 곰에서 파생된 ‘갸’은 타이폰을 반영하는 문화목록어이다. 그래서 타이폰층을 갸층이라 한다. 우로보로스층(알층)과 타이폰층(갸층)은 모두 분별이 일어나지 않은, 모든 것들이 혼돈된 상태에 있는 층을 반영한다. 인간과 자연 그리고 몸과 마음의 분별이 불가능한 의식 구조를 그대로 반영한다. 그래서 이 두 층들을 무속적 의식 구조를 반영하는 층이라고 본다. 전세계적으로 무속은 극히 일부에만 남아 있고 그 이상의 층과 공존하는 곳은 한반도뿐이다. 민족 종교가 한결같이 무(巫)적 요소를 함께 하여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으며 원시반본의 근원은 바로 알-갸 층이다.

제 3층은 인간이 최초로 정착하면서 농경생활을 시작한 때를 두고 말하는 층이다. 우로보로스층과 타이폰층에서 인간들은 일정한 장소에 머물러 있지 않고 떠돌아다니며 원시무리시대를 보냈다. 정착된 생활을 하면서 인간들끼리는 ‘우리’라는 깊은 소속감(membership)을 갖게 되었다. 1만2천 년 전에서 기원전 2천 년 경 사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위의 두 층이 모두 잠재의식 속에 있는, 즉 아직 의식이 생기지 않은 층이라면, 3층부터 매우 낮은 의식이 떠올랐다. 다산(多産)을 목적으로 하는 태모(太母, the great mother) 숭배가 주종을 이룬다. 언어와 돈을 사용하였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시간개념이 생기기 시작했다.

한국에서는 농경마을 공동체가 생기면서 그들의 소속감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마을 어귀에 솟대를 세웠다. 솟대 위에는 새가 놓여 있다. 이 당시의 대표적인 새는 ‘닭(鷄)’이며, 닭(혹은 닭)이 이러한 층의 문화목록어가 된다. 3층은 인류문명에 먼동이 트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새를 숭배하고 하늘과 땅을 매개하는 존재로 새가 등장하며 마을

마다 숫대가 세워지는 때를 반영한다. 증산 사상의 수부론(首婦論)이 등장하는 배경이다. 여성 존중과 여성의 존재가 문명의 농경시대 등장과 함께 그 기원을 같이 하기 때문이다.

<그림> 카오스 대존재 연쇄고리



제 4층은 가장 중요한 층이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층이기도 하다. 윌버는 이 시기(혹은 층)를 태양화(solarization), 혹은 태양시기(the solar age)라고 했다.⁸⁾ 온 우주와 세상이 밝고 환해지면서 하늘에서 못 남성신들이 쏟아져 내려와 그 아래 1, 2, 3층의 우로보로스, 타이폰과 태모들을 모조리 살해한다. 이런 일이 유럽쪽에서 벌어진다. 이를 ‘유럽적 균열(European dissociation)’이라고 한다. 엘리야데는 이 시기를 중요한 사건의 시기 ‘illo tempore’라고 했다. 3층에서 이미 낮은 자아의식이 싹트기 시작했으나 기원전 2000년경 청동기가 등장하면서 태양시기와 함께 매우 높은 자아의식이 등장한다. 윌버는 태양시기를 3기로 나누어, 제 1기는 기원전 2000~기원전 500년, 제2

8) Ken Wilber, *Up From Eden*, New York: Anchor Press, 1981, p.179.

기는 기원전 500년~기원후 1500년, 제 3기는 기원후 1500년~현재로 나누었다.⁹⁾

육당 최남선은 「밝문화론(文化論)」 혹은 「불함문화론(不咸文化論)」을 1925년에 발표한 바 있다. 그는 우리 역사 속에서 유명한 산천의 이름이 한자 ‘白’자로 변하는데 관심을 두어 백두산, 태백산, 장백산, 소백산, 백운산 등 白은 순수한 우리말 ‘밝’이라고 하였다. ‘밝’은 밝고 환한 하늘과 태양, 그리고 그 빛을 상징한다. 최남선은 ‘밝’문화가 우리 문화의 처음이요 끝이라고 했다. 그러나 위의 시각으로 볼 때에 밝문화가 우리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등장하기는 했으나 그 이전에 알, 감, 닥 같은 문화층이 있었음을 간과했고, ‘밝’이 그 연장선에서 나온 것임을 무시했다. ‘밝’은 우리의 매우 중요한 문화목록어(inventory) 임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4층은 인류문명에 해가 뜨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우리 문명 층에서 볼 때에 1, 2층이 아니마-무층에 해당한다면 태모층은 마나이즘-선층에 해당한다. 그리고 밝층은 인간의 자아가 등장하면서 합리적 사고를 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태모-소속감층(3층)과 태양화층(4층)은 다름 아닌 한국 문화 속에서 무층(巫層) 다음에 선층(仙層)과 철층(哲層)이 등장하던 시기를 각각 반영한다. 밝층이란 태양화 층이며 이때부터 인간의 의식이 만개되어 잠재의식을 억압하고 박해한다. 의식의 지평선에 먼동이 트고(3층), 해가 뜨는(4층) 시기라 할 수 있다. 우리는 개체발생이 계통발생을 어느 정도 반복한다고 본다. 이런 문명의 계통발생이 개인의 의식과 인지발달단계에도 어느 정도 병행하기도 하고 일치하기도 한다. 태양화 층이 등장하면서 서양에서는 심각한 균열이 발생한다. 그래서 여성과 자연에 대한 심각한 억압이 발생한다. 이를 유럽적 균열이라고 하며 이러한 유럽적 균열이 바로 신화상으로 볼 때에 하늘의 남성 신 제우스가 땅의 타이폰을 살해

9) 류승국, 『동양철학연구』, 서울: 근역서재, 1983, p.35.

하고(그리스), 마르두크 남성신이 티아맛 여신을 살해하고(바빌론), 인드라가 브리트라를 살해한다(인도). 그러나 한국의 단군 신화의 경우 하늘 아들 환웅이 땅의 웅녀를 만나 서로 결합을 한다. 이를 ‘한국적 화합 Korean Association’이라고 한다.

증산 사상의 해원 사상의 배경이 되는 대목이다. 다시 말해서 서양과 인도 나아가 중국 등지에서는 태양화 시기가 시작하면서 심각한 억압구조가 만들어졌다. 이를 선천시대(先天時代)라고 한다. 닥-밤 층이 이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알, 감층은 이에 대하여 전천시대(前天時代)라고 한다. 선천시대는 전체시대의 유산을 서양에서는 거의 악마화하고 박해한다. 여기서 원한이 맺히게 된다. 이 원한을 푸는 것이 해원 상생이다. 종지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등장하는 배경이다. 4대 종지의 거의 모두가 이 선천시대 태양화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월버는 태양화 다음은 이전의 4개의 층을 반복하면서 나타난다고 했다. 이 점에 있어서도 원시반본과 일치한다. 그러나 월버는 동양신화와 동양문명은 거의 몰랐으며 더욱이나 한국의 민족 종교의 문명관은 몰랐다. 후기에 그는 그의 책에서 이러한 약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시정을 했다. 다시 말해서 동양권에서는 균열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만약에 그가 우리 민족 종교와 대순의 4대 종지를 알았다면 아마도 그의 사상은 대폭 수정이 불가피했을 것이다.

IV. 한철학적 시각에서 본 음양합덕 종지에 대한 검토

“음양이 고르지 못하여”

음양합덕 종지는 4대 종지의 기본이다. 음은 역의 음은 ‘여성 원

리(female principle)’ 그리고 양은 ‘남성 원리(male principle)’라고 했다. 여성원리는 땅-밤-어둠-감정...그리고 남성 원리는 하늘-낮-밝음-이성...과 같이 그 연쇄 고리가 형성된다. 이렇게 볼 때에 두 원리는 문명사의 기원과 연결이 되고 3원 8소와 그 궤를 같이 하게 된다. 장전에도 “신도의 권위를 떨어뜨렸으므로 천도와 인사의 상도가 어겨지고 삼계가 혼란하여 도의 근원이 끊어지게 되니 원시의 모든 신성과 불과 보살이 회집하여 인류와 신명계의 이 겁액을 구천에 하소연하므로...”(교운 1-9)라고 했다. 여기서 말하는 겁액이란 균열에서 발생하는 억압 구조에서 약자와 강자가 모두 받는 재앙이다. 이 재앙을 극복하는 길은 모든 존재가 이런 겁액 구조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동양의 음양 조화 사상은 궁극적으로 이런 겁액을 극복하기 위해서이다. 음양이 고르지 못한 억음존양의 논리의 극복이 다름 아닌 음양 합덕의 목표이다. 증산 음양 사상의 특징은 중국의 그것과는 다른 점이 있다. 역이 원래는 점술에서 시작하였지만 공자 이후 점차로 이러한 무속적 특징은 사라지고 철학적이고 사변적이 되어 버렸다. 그러나 증산에게서 음양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음양 개념은 주술적인 성격과 한국 전통 종교 사상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우로보로스-타이폰 층의 무속과 주술적 측면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다.

공자는 인간들의 이러한 주술적 행위에 대하여 극히 반대 했으며 인간이 하늘과 직접 통하는 것을 위협시 했다. 그러나 증산은 공자의 이러한 폐기 사항을 다시 가져 왔다. 알-감 층의 원시 반분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

상제께서 정미년三月초에 광찬을 대동하고 말점도(末店島)에 들어가시려고(광찬의 재종이 말점도에서 어업을 경영하고 있었음) 갑칠과 형렬을 만경 남포(南浦)에 불러 두 사람에게 이르시

기를 「내가 지금 섬으로 들어가는 것은 천지공사로 인하여 정배됨이니 너희들은 성백(成伯)의 집에 가서 그와 함께 四十九일 동안 하루에 짚신 한 켤레와 종이등 한개씩을 만들라. 그 신을 천하 사람에게 신계 하고 그 등으로 천하 사람의 어둠을 밝히리라」 하셨도다. 두 사람은 명을 받들어 성백의 집에 가서 그대로 시행하였도다. 그후 상제께서 말점도로부터 나오셔서 그 짚신을 원평 시장에 가서 팔게 하시고 그 종이등에는 각기 「음양(陰陽)」 두 글자를 쓰셔서 불사르시니라.(공사 2-1)

위의 말은 3원 8소적 구도가 아니면 설명이 될 수 없다. 이미 공자가 폐기 처분한 음양의 주술적 요소를 다시 불러 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기독교의 예수가 차축 시대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등의 철학자들이 비합리적이라고 하여 포기하고 배척한 샤머니즘적 요소를 예수가 불러 와 병 고치는 등 기적을 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다름 아닌 유럽적 균열의 치유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래서 증산의 음양 함덕은 문명의 대 수술 차원의 것이다. 음양 조화는 유교도 도교도 다 말하지만 증산의 것은 그 차원이 다르다. 음양 조화에 있어서 마저 우로보로스-타이폰 차원의 그것을 재생 시킨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는 실로 매우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음양 조화라 하지 않고 ‘음양함덕’이라 부르게 된 것도 그 차별성을 두기 위한 것이다. 증산에게서 음양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그의 음양 개념은 주술적인 성격과 한국 전통 종교 사상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상제께서 어느 날 후천에서의 음양도수를 조정하시려고 종도들에게 오주를 수련케 하셨도다. 종도들이 수련을 끝내고 각각 자리를 정하니 상제께서 종이쪽지를 나누어 주시면서 「후천 음양도수를 보려하노라. 각자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점을 찍어 표시하라」고 이르시니 종도들이 마음에 있는 대로 점을 찍어 올리니라. 응중은 두 점, 경수는 세 점, 내성은 여덟 점, 경석은 열두 점, 공신은 한 점을 찍었는데 아홉점이 없으니 자고

로 일남 구녀란 말은 알 수 없도다 했다.(공사 2-16)

이는 과부의 재가를 허락지 않던 유교 윤리에 대하여 증산은 과감하게 이는 정음 정양의 윤리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보았으며 남녀가 짝을 짓는 것은 음양 합덕의 가장 모본이 되는 것이라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종도들의 음양도수를 끝내신 상제께서 이번에는 후천 五만년 첫 공사를 행하시려고 어느날 박 공우에게 「깊이 생각하여 중대한 것을 들어 말하라」 하시니라. 공우가 지식이 없다고 사양하다가 문득 생각이 떠올라 아뢰기를, 「선천에는 청춘 과부가 수절한다 하여 공방에서 쓸쓸히 늙어 일생을 헛되게 보내는 것이 불가하오니 후천에서는 이 폐단을 고쳐 젊은 과부는 젊은 홀아비를, 늙은 과부는 늙은 홀아비를 각각 가려서 친족과 친구들을 청하고 공식으로 예를 갖추어 개가게 하는 것이 옳을 줄로 아니이다」고 여쭙니 상제께서 「네가 아니면 이 공사를 체결하지 못 할 것이므로 너에게 맡겼더니 잘 체결하였노라」고 이르시고 「이 결정의 공사가 오만년을 가리라」고 말씀하셨도다.(공사 2-17)

즉, 증산의 주술적 행위는 다름 아닌 남녀가 짝을 지워 살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다. 유교가 금해 놓은 과부 재가 반대를 과감히 허물기 위함인 것이다. 그래서 증산의 음양 합덕의 논리는 새로운 남녀 관계와 신질서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증산의 음양 합덕이 과연 아니미증적 차원에 그치는 않는다는 것이 분명해 졌다. 재가를 하지 않는 것은 정음 정양에 어긋나는 것이다. 남녀의 짝을 짓는 것은 음양 합덕의 표본이다. 기독교가 남녀의 성 관계를 추한 것으로 여기고 예수의 동정녀 탄생을 고집하고 나아가 성직자의 독신주의를 강조하는 것은 실로 음양 합덕을 어기는 것이다.

V. 삼존 시대론: 평균적 양상과 전향적 양상

증산은 시대 구분을 지존시대, 천존시대, 그리고 인존시대로 나눈다. 지존시대란 우로보로스-타이폰의 두 층을 망라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아직 인간이 하늘을 의식하지 못하던 시기이다. 이 시기의 토tem은 길짐승이다. 뱀-우로보로스가 영물로서 취급을 받는 이유는 다름 아닌 가장 땅에 밀착된 생물이기 때문이다. 인간에게 지상의 가치는 정신적인 것이 아니고 물질적인 것이다. 다름 아닌 다산과 생산 그리고 성적 본능의 극대화를 통해 이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여기서 인간의 숭배의 대상은 땅이다. 땅-때-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태모(Greater Mother) 숭배가 최고의 가치이다. 그래서 인존 시대란 인간이 물질적 생산을 지고의 가치로 삼던 시기이다. 마르크스-프로이트의 가치가 지배하는 시기를 두고 하는 말이다.

여기서 따르는 문제는 인간이 땅을 지고로 삼는 만큼 태모로부터 인간이 사로잡혀 희생 제물을 바쳐야 한다는 모계 사회의 심각한 인간 가치의 추락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인공 희생이 잉카 문명권에서 유행을 할 정도였다. 여기서 인간이 지존 시대에서 탈출해 나와야만 할 이유가 있다. 물질의 노예적 삶에서 해방이 요청된다. 증산은 그래서 지존 시대 다음에 천존 시대를 말하고 있다.

‘천존시대’란 4층의 밝 층에 해당한다. 숫대를 세워 인간이 하늘을 쳐다보고 마술적 사고에서 신비적 사고를 하기 시작한다. 하늘과 인간 사이를 영매하는 존재가 새이다. 여기서 남성 하늘 아버지 신이 등장한다. 최남선의 ‘불함문화론’이 전성기에 이른 시기이다. 서양에서는 이 시기를 특히 ‘에누마 엘리쉬(ennuma ellish)’라고 한다. 여기서 유물론이 가고 관념론이 등장한다. 하늘과 함께 고도의 정신적 자아가 등장하면서 합리적 사고를 인간들이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신적 자이는 기원적 7세기 전후의 차축시대를 거쳐 15세기 전후하

여 그 최고조에 달한다. 이러한 시기를 천존시기라 한다. 그런데 중세기를 암흑 시기라 할 때에 이 시기에 인간은 지존시대 이상의 속박된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하늘 아버지’의 이름으로 마녀사냥을 하고 인간을 신의 범정에 세워 합법적으로 파멸시켰기 때문이다. 중세기 가톨릭교회가 한 일들과 동양권에서도 유교가 저지른 횡포가 이를 모두 잘 반영한다.

이 천존시대가 바로 선천시대이며 그 이전의 지존시대는 그런 의미에서 전천시대라고 함이 옳을 것이다. 여기서 증산과 함께 시작하는 시기를 후천 시대라고 한다. 이 후천 시대는 땅도 하늘도 아닌 인간 자신이 존중되는 시기인 것이다. 유물론과 관념론에서 모두 해방된 인간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는 시기인 것이다. 바로 4대 종지는 이 후천 개벽의 도래를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월버는 1~4층을 ‘평균적 양상(the average mode)’이라 하고, 5~8층은 이제 앞으로 미래세계에 전개될 층이라 하였다. 이를 ‘전향적 양상(the advanced mode)’이라고 했다. 엘리아데는 문명사에서 미래는 항상 과거를 반복하면서 나타난다고 했다.¹⁰⁾ 이때 미래세계(5~8층)는 1~4층을 반복하는데, 1~2층은 5층에, 3층은 6층에, 4층은 7~8층에 반복된다. 여기서 반복이라고 할 때, 그냥 단순한 반복이 아닌 보존되면서도 초월하는 반복이다. 모든 층에는 평균적 양상의 인간이 있고 전향적 양상의 인간도 있다. 4대 종지 가운데 도통진경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전향적 양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19세기에 나타난 민족 종교의 공통된 양상은 그 속에 무속적인 것과 선(仙)적인 것 그리고 유·불적인 것 심지어는 기독교적인 것이 종합되어 나타난다. 이를 두고 평균적 양상의 재 반복이라 하고 증산은 원시반본이라고 했다. 원시 반본과 함께 알, 감 층의 무속적인 것과 태모의 선적인 요소들과 태양화 시기의 유·불층이 함께 대순 사상 속에 용해 돼 있는 것이다. 이렇게 월버의 3원 8소적 구조는 대순의 4대 종

10) Ken Wilber, pp.319-328.

지를 설명해 내는 데 있어서 이상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불교에서는 붓다가 나타나는 모습을 세 가지로 분류한다. 육축이나 비천한 존재로 나타날 때 이를 응신(應身, Nirmanakaya)이라고 한다. 몸에서 분리되지 않은 마음이 '넋'과 같은 모습의 존재이다. 그래서 무층은 넋을 다룬다. 두 번째 단계는 인격적 대상으로써 객관적 존재로 나타날 때 이를 보신(報身, Sambhogakaya)이라고 한다. 주관객관으로 분리된 예배대상적 인격체로 나타난 존재이다. 세 번째 단계는 법신(法身, Dharmagakaya)이다. 붓다와 내가 하나(One)된 모습이다. 주객구별이 없어진 상태이다. 물론 법신이 사닥다리의 가장 높은 단계이며 보신과 응신이 그 다음 순서이다. 그렇다면 응신보신법신을 다 포함한 사닥다리 전체를 무엇이나고 할 때, 즉 붓다 그 자체를 불교에서 여여(如如)라고 했다.¹¹⁾ 산은 산, 물은 물인 상태이다. 이를 연(然, Svabhagakaya)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응신은 주관과 대상이 미분리된 하나(one)의 상태, 보신은 분리된 상태, 법신은 분리를 초월하여 다시 하나로(One) 된 상태이다. 붓다를 이렇게 나눈 것을 측정언어로 차용하여 표현해 본다. 즉 5층은 응신적, 6층은 보신적, 7층은 법신적, 8층은 연적라고 한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각 층의 특징을 알기 쉽게 파악하기 위해 불교에서 빌려온 매우 적합한 측정어라 할 수 있다. 불교의 이러한 구분의 유래는 결국 인간의식 층을 그렇게 나누어 보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7층과 8층은 그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하나의 층으로 묶기도 한다.

월버는 평균적 양상을 외양적(exoteric), 전향적 양상을 내밀적(esoteric)이라고 했으며, 종교를 두 종류로 분류하였다. 외양적이란 종교의 건물, 제도, 교리 같은 것이며, 내밀적인 것은 진정한 종교의 영성 같은 것이다.¹²⁾ 불신의 응, 보, 법, 연에 따라서 종교도 상응하게 분류되는데,

11) Richard H. Robinson, *The Buddhist Religion, North Situate*: Duxbury Press, p.29.

12) F. Schuon, *The Transcendent Unity of Religion*, New York: Harper and Row, 1975, p.27.

응신은 무적(巫的), 보신은 선적(仙的), 법신은 불적(佛的), 연은 한적인 것으로 분류하였다. 한국만큼 무(巫), 선(仙), 불(佛), 한의 특색이 뚜렷하며 발전단계가 질서정연한 곳도 없어 보인다. 마지막 한적인 종교는 위의 제 종교적 특징을 모두 포함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한국의 포삼교(包三敎) 사상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VI. 대순종지에 대한 논리적 성찰

상제께서 「선천에서 삼상(三相)의 탓으로 음양이 고르지 못하다」고 하시면서 「거주성명 서신사명 좌상 우상 팔판 십 이백 현감 현령 황극 후비소(居住姓名西神司命 左相右相八判十二伯 縣監縣令皇極後妃所)」라 써서 광찬에게 「약방의 문지방에 맞추어 보라」고 이르시니라. 그가 「맞지 않는다」고 아뢰니 「일이 헛 일이라」고 말씀하시기에 경학이 「여백을 오려버리고 글자 쓴 곳만 대여보는 것이 옳겠나이다」고 말하기에 그대로 행하니 꼭 맞으니라.(공사 2-20) 또 한 번은 음양(陰陽) 두 글자를 써서 약방 윗 벽에 붙이고 그 위에 백지를 덧붙이고 「누가 걸리는가 보라」 하시니라. 한참 후에 「나약한 자가 걸렸다」고 말씀하셨도다.(행록 4-33)

이러한 증산의 말을 현대인들이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에 대한 논리적 설명 없이 서양 철학으로부터 비논리적이라는 비판을 받도록 그냥 남겨 두고 넘어 갈 수는 없다. 여기서 우리는 서양 논리학에 대처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필자는 <퍼지와 한국문화>(1992)에서 현대 과학의 퍼지 논리를 통해 한국의 한철학의 논리를 전개하려고 하였다. 한이란 말 속에 들어 있는 22가지 어휘 가운데 논리적인 것이라 할 수 있는 전체, 부분, 가운데, 같음, 비결정과 같은 의미소들에 대한 논

리적인 설명이 무엇보다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한 속에 포함된 어휘들의 의미소는 그대로 대순 종지에도 응용될 수 있다. 여기서 한철학이 대순 사상과 접촉점을 갖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철학에는 논리성이 없다는 것이 서양철학 전공자들의 공통적인 비판이다.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논리’란 아래에서 말할 바로 정확, 분명, 확실성을 추구하는 논리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논리학 <오르가논>에서 삼단논법과 3대 추리법인 모순율, 동일율, 배중율을 통하여 애매하고 불분명한 요소를 우리 사고에서 추방하려고 하였다. 필자는 이러한 논리를 A형 논리라고 한다. 그러나 그와 동시대에 에피메니데스(Epimenides)라는 철학자는 소위 ‘거짓말쟁이 역설’을 통하여 역설의 논리를 전개하였다. 그 후 유프라이데스 등이 이 논리를 말하였으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주류 논리학에 밀려 비주류가 되었다. 필자는 이를 E형 논리라고 한다.

4대 대순 종지는 모두 역설의 논리에 근거해 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로는 그 설명이 불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E형 논리의 개발은 대순사상 뿐만 아니라 동양 사상 전반에 걸쳐 절체 절명적인 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 필자가 2000년 대 이후의 저서에서 E형 논리 개발에 몰두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퍼지 논리는 바로 서양에 대두된 전형적인 E형 논리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여기서 간단히 개략만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퍼지 이론은 토머스 쿤의 ‘패러다임 변화(Paradigm Shift)’이란 말을 구태여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 출발점에 있어서 종래의 과학정신하고는 차이가 뚜렷하다. 즉, 종래의 과학이 정확성·확실성·객관성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다면 퍼지이론을 비롯한 현대 신과학은 모호성·불확실성·주관성에 그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다. 근대과학정신은 실로 뉴턴-데카르트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철저한 요소환원주의, 비합리성의 배제, 그리고 엄격한 객관성이 그 과학정신의 토대였다. 그리고 이러한 근대의 과학정신에 의하여 동양적인 것은 모두 비과학적인

것으로 치부당하고 말았던 것이다. 정치적으로는 서양의 동양침략과 식민지화가 모두 비과학적인 동양사회를 일깨운다는 명분으로 합리화 되었던 것이다. 서양의 이러한 과학정신을 명치유신 이후 급속히 받아들인 일본이 조선을 합병시킬 때에도 똑같은 명분을 내세웠다.

뉴턴-데카르트적 세계관은 급속히 무너지고 있으며, 그 병폐는 의학·환경문제·심리학 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인간의 비인간화, 이것이 근대과학정신의 총결산을 내리는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정확·명료성의 시대는 가고 애매모호성의 시대가 퍼지 이론과 함께 도래하고 있다. 서구와 일본의 정확도 앞에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이라는 매도에 우리 스스로 수치심마저 가지고 자학하며 살던 시대도 역사의 심판대에 오른 것 같다.

대순 사상의 4개 종지에 대한 논리적 구조를 밝히기 위해 이 글을 작성하였다. 음양합덕에 대한 논리적인 검토를 해 본 연구는 지금까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사적인 의미에서 음양합덕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이 주요한 종지에 대한 논리적인 구조에 천착할 때가 온 것이다. 본 논문은 음양합덕의 논리적 구조를 밝히는 시도를 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우리가 사는 포스터모던 시대는 모든 지식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시기이다. 그 만큼 지식의 논리적 기반을 확고하게 마련하지 못하면 모든 지식이 쉽게 나타나 사멸하기 쉽다. 이에 본 논문은 음양합덕이 포스터모던 시대에도 그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논리적인 작업을 하는 것도 무위는 아니라고 본다.

대순사상의 ‘음양합덕’이란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뜻이다. 논리적인 표현을 빌리면 ‘부분’이 곧 ‘전체’라는 뜻이다. 부분이 직선적인 방향으로 축적되어 나가면 전체로 집합된다는 것이 유클리드 이후 전통적인 논리의 합리적 사고방식이었다. 《천부경》에도 ‘하나가 쌓여 열이 된다(一續十摠)’란 표현이 있다. 일단 작은 것이 쌓이면 커지는 것처럼 보이며 그리스 철학에서는 이를 ‘소라이테스(sorites)’라 하여 철학의

중요 문제로 다루고 있다. 체논의 역설도 결국 이런 따위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프랙탈 현상에서는 수가 작은 데서 커져 직선적인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다시 돌아와(U턴) 처음의 작은 자리로 옮긴다. 이는 부분이 전체로 직선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U턴 하는 것을 《천부경》에서는 ‘환(還)’이라고 했다. 작은 것이 큰 것이 되었다가, 다시 작은 데로 큰 것이 고개를 돌리는 것을 의미한다. 부분이 전체가 되고 그 전체가 다시 부분이 되는 모습을 현대 카오스 이론은 공식으로 표시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로지스틱 사상’이다(결론, 참고). 이는 동물의 세계에서 나타나는 먹이사슬에서처럼 부분에서 전체로 일방통행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예가 된다.

다른 한편 러셀의 역설은 문장의 예를 통해 다음과 같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거짓말쟁이 역설이란 다음 두 문장과의 관계에서 발생한다.¹³⁾

‘below sentence is False’ is Above sentence …… 문장 1

‘above sentence is True’ is Below sentence …… 문장 2

여기서 작은 따옴표 안은 상대방의 문장을 언급하고 있으며 그 바깥은 그 문장 자체를 언급하고 있다. 전자를 ‘대상언어(object language)’라 하고 후자를 ‘메타언어(meta language)’라 한다. 메타언어는 항상 부류격이고 대상언어는 요원격이기 때문에 역설은 바로 메타언어가 대상언어가 되고 그 반대로 맴돌이를 할 경우에 생긴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맴돌이는 ‘자기언급’이다. 메타는 전체적 성격을 그리고 대상은 메타에 대하여 요원적 성격을 갖게 된다(베이트슨, 1990, p.379).¹⁴⁾ 그래서 러셀의 역설은 전체와 부분의 문제이다. 편의상 몇 개의 기호를 다음과 같이 만들어 사용하기로 한다.

13) I. Copi, *The Theory of Logical Types*, London: Kegan Paul, 1971, pp.10-13.

14) “전체는 부분에 대해 항상 메타 관계에 있다.”

Above sentence A
Below Sentence B
above sentence a
below sentence b
True T
False F
is =

문장 1과 2를 이 기호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bF = A 문장 1
aT = B 문장 2

여기서 소문자와 대문자가 갖는 의미는 크다. 즉 소문자는 대상언어이고 대문자는 메타언어이기 때문이다. 문장 1과 2에서 대문자는 문장 자체가 놓여 있는 지면상의 위치를 나타낸다. 여기서 자기언급이란 곧 같은 알파벳으로서 대문자가 소문자를 또는 그 반대를 언급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 된다. 그렇다면 문장 1과 문장 2에서 대문자와 소문자를 서로 등호를 중심으로 하여 바꾸어 보기로 한다. 여기서는 문장 2의 대문자 B를 문장 1의 소문자 b와 서로 바꾼다.

aTF = A 문장 3
---------	------------

문장 3을 일상언어로 옮겨보면 다음과 같이 된다.

“‘above sentence is True’ is False” is Above sentence
 (“‘위 문장이 참이다’가 거짓이다”가 위 문장이다.)

지금 여기서 자기언급 현상과 자기부정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위 문장은 분명히 모순율에 저촉된다. “‘위 문장은 스스로 참이면서 거짓이다’고 하는 것이 위 문장이다”와 같다. 다

시 문장 3의 소문자 a에 문장 1의 대문자 A를 대입해 보면,

$$bFTF = A \quad \dots \text{문장 4}$$

와 같아진다. 이제 문장 4의 소문자 b에 문장 2의 대문자 B를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aTFTF = A \quad \dots \text{문장 5}$$

또 다시 자기언급 현상이 나타나며 자기부정 현상도 나타난다. 문장 5의 소문자 a에 문장 1의 대문자 A를 대입해 보자.

$$bFTFTF = A \quad \dots \text{문장 6}$$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규칙성을 발견하게 된다. 자기언급 현상이 번갈아 나타난다는 것과 TF의 갯수가 홀수에서 짝수로 번갈아 나타난다는 현상이다. 그렇다면 이런 규칙에 따라 다음 문장들을 예측할 수 있다.

<문장의 피라미드>

- bF(aT) = A(B) 문장 1(문장 2)
- aTF = A 문장 3
- bFTF = A 문장 4
- aTFTF = A 문장 5
- bFTFTF = A 문장 6
- aTFTFTF = A 문장 7
- bFTFTFTF = A 문장 8
- aTFTFTFTF = A 문장 9
- bFTFTFTFTF = A 문장 10
- aTFTFTFTFTF = A 문장 11
- 메타화 ← →대상화

왼쪽 끝은 a와 b가 반복되면서 나타난다. 이것은 자기언급이 번갈아 나타나는 현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피라미드 형식의 시리즈를 ‘TF시리즈(TF series)’ 또는 ‘TF 사슬’이라고 부른다.

하나의 아름다운 문장의 피라미드가 만들어졌다. 이 피라미드 속에 담겨진 의미는 많다. 피라미드의 왼쪽 방향은 메타화라 할 수 있고, 오른쪽 방향은 대상화라 할 수 있다. 즉 왼쪽 방향으로 나아갈수록 점점 메타화가 증가하고, 그리고 그 반대 방향으로 나아갈수록 대상화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장 11은 그 전 과정의 문장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문장의 숫자가 증가할수록 점차 TF 사슬의 고리 수는 증가한다. 고리 수 하나하나를 러셀은 ‘논리계형(logical type)’ (Russell, 1971, 참고)이라고 했다. 그리고 러셀은 피라미드의 위계적 층위만 혼돈하지 않으면 역설을 피할 수 있다고 보았다.

현대과학의 주요 이론들도 모두 이 피라미드 구조와 관계되어 있다. 이 피라미드는 같은 돌로 쌓여진 질서의 구조가 아니다. T와 F라는 정반대의 돌들, 그리고 자기언급과 자기부정이라는 서로 상반된 돌로 피라미드가 만들어져 있다. 매우 혼돈스러운 구조인 것이다. 괴델의 불완전성 이론,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이론, 카오스 이론, 퍼지 이론들은 모두 이 피라미드와 관계되어 이해될 수 있다.¹⁵⁾

이러한 E형 논리는 대순 종지의 신인 조화를 설명하는 데 그대로 응용될 수 있다. 예를 아래 대순 신관을 이해하려고 할 때에 위의 E형 논리가 아니면 그 설명 자체가 불가능하다.

신과 인간이 합하여 백가지의 동이 이루어진다. 신명은 사람을 기다리고 사람은 신명을 기다리니 음과 양이 서로 합하고 신과 인간이 서로 통한 이후에 하늘의 도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신의 일이 이루어지며 인간의 일이 이루어지고 신의 길이 이루어진다.(無神前無導而所依神人和而萬事成神人合而百工成神明
人人竣神明陰陽相合神人相通然後天道成而地道成神事成而人事成

15) Bart Kosko, *Fuzzy Thinking*, NY: Hyperion, 1993, pp.6-7.

人事成而神事成神明神明天地諸神明下鑑垂察奉命身太一聖哲所願成就) (교운 2-42)

E형 논리는 해원상생과도 연관이 된다. 원한은 바로 A형 논리 구조 속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A형의 이분법적이고 양분법적 사고방식이 원한을 가득 차게 만들었다. 이를 푸는 방법은 새로운 논리라는 방법뿐이다. 도통 진경의 세계는 다름 아닌 갈등이 지배하는 곳이 아니라 조화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바로 이러한 조화의 세계를 가능케 하는 논리가 역설의 논리 혹은 E형 논리이다.

VII. 맺음말

탈현대란 모든 합리적인 것이 모두 해체되는 시기이다. 지식의 기반이 확고한 논리적 토대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민족 종교 진영이 안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은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를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이 점을 극복하지 못하면 사상의 세계화는 불가능하다. 여기서 필자가 시도하고 있는 것은 한철학과 서양 철학의 방법의 조화를 통해 대순 사상의 주요한 종지를 설명해 내는 한 시도이다. 이러한 시도가 또 다른 방법론적 검토를 통해 우리 사상이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대순진리회 교무부편, 『전경』, 서울: 대순진리회편, 1987.
- 김상일, 『알랭 바디우와 철학의 새로운 시작』, 서울: 새물결, 2007.
- 류승국, 『동양철학연구』, 서울: 근역서재, 1983.
- 우실하, 『요하문명론』, 서울: 소나무, 2007.
- 이향녕, 『현대문명과 대순사상』, 서울: 일심, 2004.
- F. Schuon, *The Transcendent Unity of Religion*, New York: Harper and Row, 1973.
- Bart Kosko, *Fuzzy Thinking*, NY: Hyperion, 1993.
- Eric Neumann, *The Origin and History of Consciousnes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3.
- Ken Wilber, *Up From Eden*, New York: Anchor Press, 1981.

▪Abstract▪

A Study on Han Philosophical Approaching to The Daesoon Thoughts

Sang-Yil Kim

Hanshin University

This paper is designed to show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aesoon Principle and the recent theories like transpersonal psychology(TP) and predicate logic. According to TP there are 3 categories and 8 elements inside of not only human consciousness but civilization; three are pre-ego, ego, trans-ego, and eight are Uroboros, Typhon, Greater Mother, solarization, and repetition of the previous fours. The former is called, for Ken Wilber, the Average mode and the latter, the Advanced mode. I think that Daesoon thought including general Korean National religions belongs to the Advanced mode.

I applied the predicate logic or paradoxical logic to understand of the Harmony of God and Man as well as Correspondence of Yin with Yang. The paradoxical logic has been not acceptable through two thousands years in the western tradition. I call the paradoxical logic the E type logic in this paper. The E type logic is most suitable logic for apprehending the Daesoon philosophy to a large extent. Finally my paper may contribute to the globalization

of Daesoon mind system.

Key-word : Daesoon Grand Doctrines, Transpersonal psychology, Harmony of God and Man, Average mode, Advanced mode, Liar Paradox, Russell's Paradox, predicate logic, Uroboros, Typhon, Greater mother, Solarization, Correspondences of Yin with Yang, Zeongsan Sangjae, Daesoon 4 Major Doctrines

◎ 투 고 일 : 2009년 6월 23일

◎ 심사 기간 : 2009년 7월 22일~29일

◎ 게재 확정 일 : 2009년 8월 8일